# 충치 등 손상된 치아 살려서 쓰기 위한 마지막 치료

**건강 바로 알기**
근관치료

## 치수에 염증 생긴 경우 치아 빼지 않고 살릴 유일한 방법
## 성공률 90~95% … 마취 하면 심한 통증 걱정 않아도 돼

조선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조형훈 교수

근관치료는 일상적인 치과치료 중 하나로 흔히 신경치료라고 부른다. 치아의 바깥쪽 부분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경과 혈관 등으로 이뤄진 치수(齒髓, 치아 속질)가 존재하며, 이 치수가 존재하는 뿌리 쪽 공간을 근관(根管)이라고 부른다.

충치가 진행돼 치아 내부까지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치수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흔히 말하는 '잠 못 잘 정도'로 심한 치통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를 '치수염'이라고 한다. 그런데 치아는 바깥쪽 부분이 단단한 치질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서 들어오는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염증이 해소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더 진행돼 결국 치수가 죽게 되고, 더 방치하게 되면 치아 뿌리 주변으로 염증이 퍼져나가게 된다. 이때 치수의 염증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세균에 감염되고 죽어버린 치수를 없애 증상을 해소하고 더 이상 염증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근관치료의 목적이다.

◇근관치료하면 치아를 못쓰게 된다(X)=종종 근관치료는 신경을 죽이는 치료로 근관치료를 받게 되면 치아가 쉽게 망가지고 오래 못쓰게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근관치료는 치수에 염증이 생긴 경우 치아를 빼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신경을 죽이는 치료가 아니라 이미 충치로 인해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 있는 치수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치아를 살리는 치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관치료를 해서 치아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근관치료를 해야 할 만큼 충치 때문에 이미 치아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 근관치료를 하는 것이다.

근관치료의 치료 과정은 먼저 충치 부분을 제거하고 치아 내부로 접근하기 위해 치아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근관 내부의 감염되고 괴사된 치수를 긁어내고 씻어내고 소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치아 내부의 가느다란 근관을 찾아서 치료하는 과정이 근관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근관치료 자체가 치과치료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치료이다. 소독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다시 근관으로 세균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치아의 뿌리 부분에 인공 재료를 채워 넣고 손상된 치아의 머리 부분을 수복해 주고, 필요한 경우 금니 등을 씌우는 치료를 이어서 하게 된다.

◇치료가 견디기 어려운 통증을 가져온다(X)=근관치료는 흔히 치과치료 중 가장 아픈 치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절하게 마취를 하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심한 통증이 생겨서 치과를 내원한 경우, 즉 이미 치수 내에 염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마취를 충분히 하더라도 염증으로 인해 마취가 잘되지 않아 치료 중 추가 마취를 더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신경치료는 너무 아프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관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통증보다 심한 염증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근관치료 과정 중에 치아 뿌리 끝 주위 조직에 불가피하게 자극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치료 이후에 2~3일 정도 약간의 통증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근관치료 성공률이 90~95%에 달하지만 다른 치료들과 마찬가지로 100% 성공하는 치료는 아니다. 치아와 근관의 복잡한 형태가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근관치료 과정을 적절하게 시행하더라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먼저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밀진단과 수회에 걸친 근관치료 이후에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거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마지막 치료방법으로 외과적 근관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외과적 근관치료는 치아 머리 부분부터 접근해서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잇몸을 열고 치아 뿌리 쪽으로 직접 접근해 역으로 근관치료를 하는 '치근단 미세수술'과 잇몸을 열지 않고 치아를 발치하여 역으로 근관치료를 한 후 다시 넣는 '의도적 재식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다. 그러나 치아 뿌리 쪽으로 금이 가거나 부러져 있는 경우는 외과적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며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치료를 해야 한다.

근관치료는 충치 등으로 손상된 치아를 살려서 쓰기 위한 마지막 치료 방법이다. 임플란트가 대중화되어 아프면 빼고 임플란트를 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지만 자연 치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자연치아를 살려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치과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형훈 교수가 치수에 염증에 생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조선대치과병원 제공〉

# 전남대병원 '천사데이' 맞아 사랑나눔 봉사활동 펼쳐

## 깨끗한 손, 올바른 손 씻기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천사데이(10월4일)'를 맞아 최근 병원 1동 로비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천사데이'는 천사를 숫자로 나타내는 10월4일에 각종 건강 체크와 상담 등의 의료봉사를 통해 환자와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신은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남대병원 간호관리자, 감염관리실, 금성미용전문학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한 삶은 간호사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손, 올바른 손 씻기'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내방객 400여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동영상 상영, 손 위생 시범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혈압측정, 혈당검사, 체지방 측정 그리고 네일 케어와 건강 상담 행사도 가졌다.

특히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손 위생 체험에서는 내원객의 손에 직접 형광물질을 묻혀 손 씻기 전후를 비교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신은숙 간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자와 내방객 모두가 감염관리,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면서 "전남대병원 간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발암 우려물질' 위장약
## 알비스·라비수·큐란
## 2017년 이후 처방 많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가운데 2017년 이후 처방량이 많았던 제품은 알비스, 라비수, 큐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라니티딘 성분 전체 처방량은 2017년 4801만건, 2018년 5360만건, 2019년 상반기 2914만건 등 1억 3075만 건에 달했다.

처방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은 알비스정(대웅제약)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라비수정(대웅바이오), 큐란정(일동제약), 큐란정75밀리그램(일동제약), 루비스정(한국휴텍스제약), 라세틴엠정(마더스제약), 가제트정(알피바이오), 엘버스정(휴온스), 넥시나정(넥스팜코리아), 라니빅에스정(한미약품) 순이었다. /연합뉴스

# 청연, 카자흐서 학의약 알리미 활동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최근 이틀 동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의료관광대전에 참여했다. 〈사진〉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총 19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해외 상주 병원으로서는 알마티 청연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지 언론매체 3곳(KTK, 31 Channel, nur.k)이 행사 촬영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의료관광 체험수기 토크를 비롯해 K-BEAUTY SHOW, 넌버벌 공연, 나전칠기 기념품 만들기 체험, 한국 전통 다과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됐다.

아울러 알마티 청연 홍보 부스에서는 한국에 소재한 청연 본원,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알마티 청연을 소개했다. 또 알마티 청연의 진료과목 및 FPT크림, 경옥고, 공진단 등 제품 소개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투자가치 좋은 경매물건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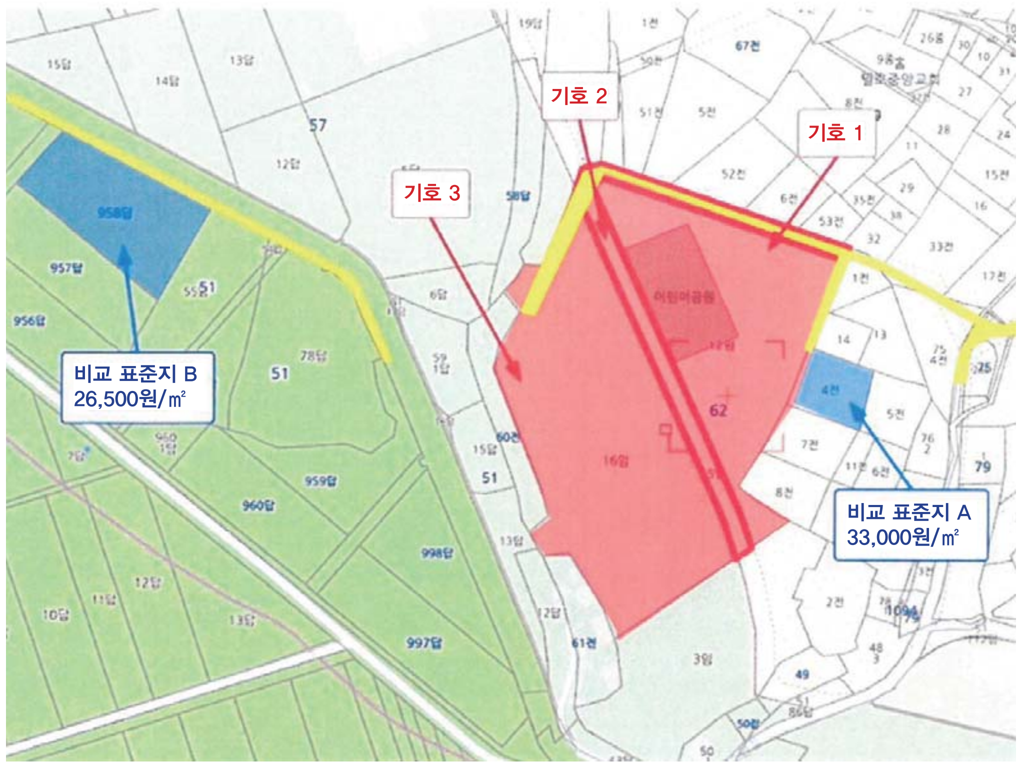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계(061-270-6691) / 매각기일 : 2019.10.14(月) (10:00)

2018타경8300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62-12 외 2필지

| | | | |
|---|---|---|---|
| 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1,712,816,000원 |
| 토지면적 | 19835㎡(6000.088평) | 최저가 | (70%) 1,198,971,000원 |
| 건물면적 | | 보증금 | (10%) 119,900,000원 |
| 매각물건 | 토지 매각 | 소유자 | 유한회사리치산업 |
| 개시결정 | 2018-11-19 | 채무자 | 유한회사리치산업 외 3명 |
| 사건명 | 임의경매 | 채권자 | 김현성외1 |
| 관련사건 | 2019타경3593(중복), 2019타경3609(중복), 2019타경3616(중복) | | |

오늘조회: 5 2주누적: 207 2주평균: 15

| 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 2019-09-02 | 1,712,816,000원 | 유찰 |
| 2차 | 2019-10-14 | 1,198,971,000원 | |

매각토지.건물현황( 감정원 : 인산감정평가 / 가격시점 : 2018.11.29 )

| 목록 | | 지번 | 용도/구조/면적/토지이용계획 | | ㎡당 단가 (공시지가)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1 | 월암리 62-12 | 준보전산지,하수처리구역,개발촉진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제... | 임야 7376㎡ (2231.24평) | 109,000원 (12,600원) | 803,984,000원 | * 현황 '묵전' |
| | 2 | 월암리 62-15 | 준보전산지,개발촉진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도시계획구역 | 임야 2189㎡ (662.173평) | 68,000원 (10,700원) | 148,852,000원 | * 현황 '묵전' |
| | 3 | 월암리 62-16 | 준보전산지,개발촉진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계획구역 | 임야 10270㎡ (3106.675평) | 74,000원 (7,640원) | 759,980,000원 | * 현황 '묵전' |
| | | | 면적소계 19835㎡(6000.088평) | | 소계 | 1,712,816,000원 | |
| 감정가 | | | 토지:19835㎡(6000.088평) | | 합계 | 1,712,816,000원 | 토지 매각 |